

# 화폐 속 위인 표준영정 교체 전망



▲ 한국 화폐 속 위인 영정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타운뉴스DB

한국의 화폐 속 위인 영정이 새 그림으로 바뀔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화폐 공공성을 감안해 정부 표준영정을 화폐 도안으로 사용해 왔는데, 화폐 영정을 그린 작가들의 친일 행적 때문에 표준영정 지정이 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은은 이날 "화폐 도안의 위인 초상에 대한 정부의 표준영정 지정이 해제되면 도안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폐 가운데 100원화(이순신), 5,000원권(울곡 이이), 1만원권(세종대왕), 5만원권(신사임당) 속 정부 표

준영정 작가는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됐다. 영정을 그린 화백은 장우성 화백(이순신), 김은호 화백(이이, 신사임당), 김기창 화백(세종대왕)이다.

표준영정은 한국 역사 속 인물 중 민족적으로 추앙받는 위인들의 영정 난립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영정을 말한다. 한국 화폐 초상은 표준영정을 사용하고 있다. 1호 표준영정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다.

100원짜리 동전이 가장 먼저 바뀔 공산이 크다. 충무공 영정은 1983년 100원짜리에 새겨진 이후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 100원 표준영정은 현충사관리소에서 지정 해제를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에서 해제를 심의하고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등 지폐는 현재 표준영정 지정 해제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정해진 건 없다. 다만,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충무공 영정 외에 나머지 친일 논란이 있는 화가가 그린 영정 13위를 소유주 신청 없이도 문체부가 지정 해제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마저 이직률 급등에 골머리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던 공공기관들마저 신입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고신입들이 신입으로 이직한 이유는 더 나은 복지와 수도권, 서울에서의 근무를 위해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중고신입' 행을 선택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 경력을 포기하고 신입으로 재입사하는 이들로 인해 공공기관 신입들의 평균연령도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다.

신입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작은 기관에 취업했다가 2년 정도 경력을 쌓은 뒤 더 좋은 기관 신입으로 다시 도전해 취업해도 손해볼 것은 없다.

임금이 높아지니 연봉 보전도 되는데다 기존 직장에서 쌓은 노하우가 있어 다른 기관 신입으로 들어가도 동기들보다 경쟁력에서 앞선다는 면에서다. 기관

들도 이런 중고신입 직원들을 받는데 싫지 않은 눈치다. 경력 수준으로 역량을 갖춰서 바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도 어렵지 않다. 회사별로 한국사나 토익, 한국어 시험 등 공공기관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나 NCS와 전공필기 등 시험방식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보니 준비했던 것을 토대로 몇 번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 기반을 둔 공공기관들은 이같은 신입 러쉬 현상으로 고민이 많다. 지방 공기업 인재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이직 현상은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이지만 이를 붙잡을 뚜렷한 유인이 아직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될 경우 이같은 2차 러쉬는 또 벌어질 수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라는데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 '드론택시' 첫 시험 비행



▲ 한국 최초로 드론택시가 시험비행을 마쳤다. 사진=KBS 화면 캡처

한국 최초로 드론택시가 하늘을 날았다. 정부 계획대로 기술개발 등이 진행되면 2025년 드론택시가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대에 주파하게 된다.

1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K-드론시스템(다수 드론의 안전운항을 지원하는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도심항공교통 드론택시 비행실증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실증에는 2인승급 드론기체 1대가 투입됐다. 드론기체는 한 사람 무게의 이천살 4포대(80kg)를 싣고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출발해 약 50m 상공에서 마포대교와 서강대교를 두 번 돌아 약 7분 만에 안전하게 돌아왔다.

비행실증에 투입된 기체는 중국 이항사의 2인승급 기체(EH216)다. 드론택시용 기체는 전기동력(친환경), 분산추진(저소음·안전), 수직이착륙(도심공간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대차에서는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우버와 협력해 개발 중인 기체 모형을 전시한 바 있으며 2028년까지 8인승 드론택시 기체를 제작해 상용화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즈는 미국에서 오버에어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해 기체를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드론택시를 타고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드론택시 비행 실증으로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도심항공교통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비행 실증 준비 과정에서 드론택시 기체 안전성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